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이강휘

타인을 이해하며 더 넓어지는 우리의 세계



천국에 염라가 산다

이담 장편소설

키워드 : 성장, 우정, 이해, 관계, 사후 세계

사회평론주니어

책 소개

환경 오염에 따른 개체 수 감소로 환생할 수 있는 영혼이 적어진 21세기의 저승. 늘어나기만 하는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 저승은 메타저승을 세우고 영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한다. 한편 저승엔 차기 염라대왕을 뽑기 위한 시험이 열리고, 겉모습만 열여섯 영혼 라희는 당당히 시험을 통과해 염라대왕 실습생 신분을 하사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성적도, 출신도, 능력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꼴찌일 뿐이다. 그런 라희에게 염라대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바로 중학생 율민의 몸에 붙은 한 영혼을 무사히 저승으로 데려오는 일. 임무에 실패하면 영혼이 소멸되는 무시무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라희는 염라대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승으로 향한다.

평범한 중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 라희는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율민과 가영 그리고 이진과 가까워지게 된다. 갈등과 엇갈림을 겪으며 그들의 사연과 마음을 이해하게 된 라희. 점점 다가오는 임무 완수의 시간, 라희는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습 목표

1. 작품 내용을 고려하여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2.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의도를 추론하며 작품을 읽을 수 있다.
3. 작품을 읽고 작품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학습 계획

단계	활동내용	차시
읽기 전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 쌓기 & 작품 내용 추측하기	1차시
읽기 중	울민, 오늘의 운세 - 강제 임명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창의적 읽기) 인물 특징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4. (창의적 읽기 + 비판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지식 확장하기 + 작품과 관련된 현상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2차시
	추적의 시작 - 정체 확인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등장인물 입장 되어 보기 3. (추론적 읽기) 내용 추론하기 4. (창의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방안 생각하기	3차시
	화장하던 날 - 예상은 빗나가고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3. (비판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이 생각 비판하기 + 인물의 정체 추론하기 4. (감상적 읽기) 등장인물의 심정에 공감하기	4차시
	울민, 두 사람만의 교감 - 감춰진 비밀을 찾아서 1. (추론적 읽기) 소재의 기능 추론하기 2.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4.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5차시
	새로운 저장 장치 - 가십에 담긴 진실 1. (창의적 읽기 + 감상적 읽기) 인물의 심리 공감하기 + 작품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2.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 소재의 역할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내용 추론하기 + 작품의 주제 추론하기 4. (창의적 읽기) 작품 내용 기반으로 사고 확장하기	6차시
	그만 갈래 - 작가의 말 1.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 인물의 의도 추론하기 2. (추론적 읽기) 내용 추론하기 3.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4. (추론적 읽기) 인물의 의도 추론하기	7차시
읽기 후	인물에게 편지 쓰기 & 속편 구성하기	8차시

1. 참고 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 화제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 참고 영상: [#프리한19] 한 번도 보지 못한 저승라라 세계
<https://www.youtube.com/watch?v=3ZA3sRbkdY>

1-1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1-2 여러분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나요?

2. 다음에 제시된 용어는 이 작품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시아의 저승 세계관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및 소재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염라대왕	불교 신화에서의 사후 세계의 심판관. 죽은 자의 생전 행위를 심사하여 선악의 업에 따라 지옥, 천상, 인간계 등 윤회의 행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삼신할미	아기를 점지하고 산육을 관장한다는 신.
서천꽃발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위치한 꽃발이며 신화에 따라서 저승 중 하나로 묘사된다.
저승차사	사람이 죽으면 저승까지 인도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들을 보통 저승차사라고 한다. 대체로 세 명이 짝을 이뤄서 다니기에 저승 삼 차사라고도 말한다. 차사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우리 무속신화에서는 흔히 강림차사, 일직차사, 월직차사 등 셋이 함께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구니	불교에서 '해탈을 방해하는 번뇌' 또는 '마음속의 악한 생각이나 의지'를 의미하는 용어. 일상적으로는 '잡생각'이나 '방해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नी이 돌아가는 곳을 이르는 말.
명경대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거울. 지나는 사람의 생전의 행실을 그대로 비춘다고 한다.
삼태성	큰곰자리에 있는 자미성을 지키는 별. 각각 두 개의 별로 된 상태성(上台星), 중태성(中台星), 하태성(下台星)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도천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큰 내. 극악(極惡)하지도 극선(極善)하지도 않은 사람이 건너게 되는데,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여울이 정해진다.
한락궁이	제주 지역의 신화 '이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로, 서천꽃발의 꽃감관으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신

3. 등장인물 소개란의 정보를 토대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에 답해 보며 소설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질문	예상 답변
1	율민이 '얼마 전부터 겪고 있는 말 못 할 고민'은 무엇일까?	갑자기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건 아닐까?
2	가영과 이진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친해졌을 것 같아.
3	라희가 해결해야 할 '저승의 난제'는 뭘까?	
4		
5		
6		

1.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간단 퀴즈

- 메타저승이 만들어진 후 윤회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 구천소생천이 만들어진 계기는?
- 구천소생천 주민이 윤회 시스템에 들어가는 방법은?
- 튕겨 나간 영혼을 데려오는 방법은?
- 라희 선학이 염라대왕의 제안을 수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2. 라희 선학과 함께 할 세 위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오늘 시험은 어땠어?”

전생에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뺄뺄 마른 골골해골이 물었다. 나는 오늘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기가 막히네. 그냥 놔뒀어? 지랄이라도 좀 떨지.”

“다음에는 예의 차리지 말고 꼭 협박해 버려. 염라대왕이 되면 윤회대기소를 없애 버리겠다고 말아야.”

골골해골에 이어, 사방으로 눈동자를 굴리는 게 다 보일 만큼 눈이 큰 떼굴이가 흥분하면서 말을 보탰다. 두 영혼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점점 광분했다. <중략>

“윤회대기소를 없애면 문제가 더 커져. 그걸 알면서도 라희에게 협박을 하라고 부추겨? 차라리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어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미스터 점이 말했다. 미스터 점은 점이 얼굴의 반을 차지한 까닭에 붙은 이름이다. 나는 구천소생천에서 이들 세 영혼과 가장 친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 같았다. 골골해골과 떼굴이가 언니 오빠 같다면, 미스터 점은 아빠처럼 느껴졌다. 나를 조용히 지지해 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성적으로 조언해 주곤 했다. 나도 미스터 점의 말은 귀담아듣는 편이었다.

골골해골	떼굴이	미스터 점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누르려는데, 염라대왕이 다가와 말했다.

“동지에는 돌아와야 한다. 몇 가지 금기들을 꼭 기억해라. 우선 네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이승에 도착한 날로부터 삼칠일 동안만이다. 많은 미래가 새어 나가면 영계가 흔들리므로, 날마다 그날 하루치의 미래만 볼 수 있다. 영혼이 들어간 몸주를 마구니로부터 보호해라. 마구니가 심하게 요동치면 몸주의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염라대왕이 될 영혼이다. 혼이 섞임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게 주어진 육신에 다른 영혼을 함부로 실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마라. 만약 이걸 어기면 너는 차기 염라대왕이 될 수 없다.”

3-1 아래 표를 채워 염라대왕이 말해 준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조건 1	동지에는 돌아올 것.
조건 2	
조건 3	
조건 4	

3-2 각 조건을 어겼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추측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조건 1을 어긴다면	동지에 돌아오지 못해 영혼이 소멸될 위기에 빠진 라희. 하지만 율민의 사랑으로 얻게 된 시간을 돌리는 능력으로 시간을 되돌려 무사히 저승에 복귀하고 차기 염라대왕이 된다.
조건 2을 어긴다면	
조건 3을 어긴다면	
조건 4을 어긴다면	

지도Tip 향후 서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금기를 파악하고 금기를 어길 때 발생하게 될 여러 에피소드나 이야기의 흐름을 상상하는 활동입니다. 작품 초반이므로 자유롭게 상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4.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염라대왕 공채 시험에 지원할 자격을 저승 모든 영혼에게 주면 뭐 하냐고! 결국 구천소생존 영혼들이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4-1 영상을 참고하여 염라대왕 공채 시험과 과거 시험 간의 공통점을 정리해 봅시다.

- ▶ 참고 영상1: 조선시대의 수능 과거 시험에 대해
<https://www.youtube.com/watch?v=l7XhevhB3SE>

4-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모든 영혼에게 지원할 자격을 부여하는 염라대왕 공채 시험은 공정하다’라는 진술을 비판해 봅시다.

- ▶ 참고 영상2: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의 충격적 결함? [공정하다는 착각 요약]
<https://www.youtube.com/watch?v=fJ8A1XlpJfI>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괄호를 채워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라희가 율민에게 오늘의 운세를 말해준 이유는 _____ 을/를 치기 위함이었다.
- 율민이 라희와 동행하기를 결정한 이유는 _____ 이다.
- 라희는 율민과 함께 _____ (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텃진 영혼을 만났다는 _____ 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 라희 일행이 치안센터에 가게 된 경위는 _____ 이/가 데리고 온 _____ 이/가 빌라 주민의 _____ 을/를 파손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율민이 나를 데려간 곳은 근처 놀이터였다. 나는 깨끗해 보이는 벤치를 찾아 앉으며 율민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러나 율민은 굳이 그 옆의 다른 벤치에 앉았다. 속 좁게. 나는 혀를 찰라며 물었다.

“뭐가 궁금한데?” / “진짜 네 정체.” / “차기 염라대왕.”

“야! 염라대왕이라니! 소설을 써도 좀 개연성 있게 써야 믿어주는 척이라도 하지.”

죽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염라대왕의 존재를 부정하다니! 근엄하게 호통치고 싶었다. 그러다가 문득 ‘꼰대’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승에 오자마자 배운 몇 안 되는 말이었다. 제기랄. 꼰대로 취급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소리는 왜 질러? 나 귀 엄청나게 밝거든. 여기 귀신들 지나가는 발소리까지도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살 살 말해.”

“거짓말 좀 그만해. 나를 좋아하면 그냥 좋아만 해. 어차피 네 마음은 네 거니까. 이상한 무당 흉내로 사람 농락하지 말고.”

2-1 여러분이 율민의 입장이라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차기 염라대왕이라는 라희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지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2 만약 여러분이 라희라면 차기 염라대왕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율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다음을 참고하여 이진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추측해 봅시다.

“내 몸에 들어온 귀신이 이진이가 아니면?”

“그럴 리 없어.”

증거는 없지만 확신했다. 텃진 영혼이 발견된 즈음에 이진 역시 유학을 간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연락이 되지 않는 이진을 걱정하던 가영이 이진 엄마에게 물어보니 해외여행 중이라고 했단다. 정말일까? 곧 유학을 갈 아이가 그 시점에 해외여행을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진과 가영은 갯대디와 갯맘으로 각별한 사이였다. 이진이 한순간에 연락을 딱 끊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3-2 다음을 참고하여 올민과 이진의 관계에 관해 추측해 봅시다.

“너 뭐야. 네 아빠가 시켰니? 아니면 네 엄마가 그러라고 한거야? 우리 이진이 어디다 숨졌어?”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이진 엄마가 단번에 올민을 알아보다니. 놀란 건 올민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경찰이 빠르게 이진 엄마를 저지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드님 얘기부터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이진 엄마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아드님이 아니세요?”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진 엄마는 사라진 이진의 행방을 올민과 올민의 부모에게서 찾고 있었다. 이진 이진 엄마와 올민의 부모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어, 혹시 지난번에 실종 신고 하신 분 아니세요?”
 이 소란을 지켜보던 다른 경찰이 이진 엄마에게 알은체를 했다.
 이진 엄마가 말을 건넨 경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별장게 달아오른 볼과 짙 깨문 입술에서 감정을 다스리려는 의지가 보였다. 그러나 감정을 누르는 게 쉽지 않은지 이진 엄마는 아주 잠깐이지만 올민을 노려봤다. 그 모습이 너무 서늘해 나도 흠칫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진 엄마는 온몸에 힘이 빠진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진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다.
 “장난치면 못써. 이진 이진이를 무시하는 거거든.”

4.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길고양이 돌봄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했다.

- ▶ 참고 영상1 : 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 '일단 보류' (2023.09.14/뉴스데스크/대전MBC)
<https://www.youtube.com/watch?v=PUZFVTtSFKo>
- ▶ 참고 영상2 : 불청객인가, 이웃인가? - 길고양이 갈등, MBC 210309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iHHhCVgaeMw>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진술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동그라미를 쳐 봅시다.

- 영혼이 튀어나오는 타이밍을 알아채는 방법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O, X)
- 이진이 율민에게 빙의된 것은 둘이 이복형제이기 때문이다. (O, X)
- 영혼 분리를 위해서는 분리한 영혼을 담을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O, X)
- 이진 엄마가 이진의 물건을 찾아 달라는 라희의 제안을 수용한 이유는 이진이 사망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O, X)

2.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가영은 율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흠칫했지만,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이 탔다. 저장 장치를 구하지 않으면 삼도천을 건너 저승까지 무사히 갈 수 없었다. 삼도천은 그 에너지파장이 워낙 커서 파일화된 영혼이 그냥 지나다가는 손상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영혼을 담아 이동할 저장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망자에게 의미 있는 물건이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진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줄 사람은 가영과 이진 엄마뿐이었다.

“가영아, 나는 죽은 이진의 영혼을 안전하게 저승으로 데려가고 싶어. 그러려면 이진이가 평소에 아끼던 물건이 있어야 해. 이진 이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해. 그러니까 도와줘.”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다음 내용의 근거로 밑줄 친 라희의 추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봅시다.

“이진이가 그렇게 된 건 엄마도 안타까워. 하지만 너랑 상관없는 아이야.”

율민의 부모는 내 말에 대꾸할 생각도 않고 녀석만 쳐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율민 엄마는 다시 칭찬스티커 북과 드론을 잡으며 녀석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진이 그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율민과 상관없다는 율민 엄마를 보면서 나는 율민이 한 말을 떠올렸다.

“엄마가 괜찮대. 모두 이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빠를 원망하지 말래.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차라리 나 때문에 이혼하기 싫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어. 그런데 내 핑계는 대지도 않아.”

율민 엄마의 반응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지금만 해도 그렇다. 지나치게 무심하고 냉정하다. 이진은 남편의 혼외자, 즉 남편이 자기를 배신한 상징과 같은 아이다. 살아 있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수가 없었다.

“엄마 말 들어라. 어차피 네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 거야. 우리 가족과의 인연은 더욱 없을 테고.”

서영재 박사의 말을 들은 녀석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다. 녀석은 숨을 거칠게 내쉬더니 발악하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내가 아들인데도 인연이 없다고? 내가 유령이야?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한이진이라니까 왜 자꾸 무시해요?”

“그럼, 내 아들이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지.”

율민 엄마가 타이르듯 달랬다. 녀석은 더 악을 쓰며 뻘뻘 소리를 질렀다.

“아니라니까. 나는 이진이라고요. 가엽지 않아요? 미안하지 않아? 나도 당신 아들인데 불쌍하지 않아요? 설마 내가 이진이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중략>

“이진아, 그냥 율민이로 살렴. 그리고 서영재 박사님, 당신은 정말 못된 아빠네요. 이진이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끝까지 율민이만 생각하시네요. 사과 한마디가 그리 어려우세요? 율민이 몸에 붙어서라도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헤아려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난 말이죠, 이진이가 여기 있고 싶다고 하면 더는 말리지 않을 거예요. 가여운 내 새끼가 돌아온 것 같아 오히려 좋아요. 한 번씩 볼 수도 있잖아요.”

지도Tip 이진이 서영재 박사의 혼외자라는 추론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

3-2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이진의 정체에 관해 추측해 봅시다.

4. 밑줄 친 부분에서 서영재 박사가 보인 태도를 마주한 이진의 심리에 공감해 봅시다.

“한이진! 올민이가 죽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어?”

녀석이 자기 엄마를 노려보았다.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 나는 왜 ‘서이진’일 수 없는 건데? 왜 서울민은 처음부터 서울민이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왜 한이진이여야 하는 거냐고!”

울부짖는 녀석의 말에서 그동안의 방황과 서글픔이 느껴졌다. 올민에게 당연한 ‘서’올민이라는 이름이 녀석에게는 가질 수 없는 꿈이었으니... 그 마음이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올민이가 죽으면 넌 살인자가 되는 거야.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을 거야. 이쯤에서 멈춰. 너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

“다 잊을 수 있을 거란다. 막상 저승에 가면 마음이 다 풀리게 되거든. 그러니 그만 올민이 몸에서 나오렴.”

내 말에 이어 현관에 서 있던 미스터 점이 녀석을 달랬다. 서영재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올민이 다치지 않게만 해 달라고 사정했다. 이젠 올민의 몸에 이진의 영혼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는 듯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밑줄 친 '일기장'의 내용에 대해 추측해 봅시다.

“거짓말. 나를 진짜 해외로 보내기 싫었다면 아빠에게 못 보내겠다고 끝까지 말했어야 했어요.”
 “오래전에 쓴 그 일기를 네가 봤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 너 정말 엄마 일기장을 본 게 맞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울민은 그들 사이에 아빠의 외도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했다. 이진 엄마는 ‘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외도를 통해 낳은 혼외자여도 자식은 자식이다. 자기 아들을 해외로 보내려는 것을 말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일기장이라니. 울민은 그 일기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해졌다. 그걸 알면 울민이 가진 의문이 풀릴 것 같았다.

1-2 밑줄 친 '두꺼운 책'이 향후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추측해 봅시다.

녀석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대에 걸터앉은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책상 스탠드를 켜다. 이진 엄마는 아직 아들의 방을 정리하지 않은 듯했다.
 방 안 곳곳에 이진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가슴에 품더니, 침대 밑으로 허리를 굽혀 상자를 끄집어냈다. 겨울옷을 수납한 상자였다. 녀석은 그 두꺼운 책을 겨울옷 사이에 숨겼다. 언뜻 '서영재'라는 글자가 보인 듯했다. 잘못 본 걸까. 만약 아빠가 쓴 책이라면 왜 숨기는 걸까. 녀석은 수납 상자를 침대 밑으로 다시 밀어 넣고 책상 의자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2. 여러분의 가장 친구를 떠올려 보고 그 친구와 친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진이와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나?”
 내가 고개를 가로젓자, 가영이 배시시 웃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실외기 옆에 놓인 그릇에 사료를 채워 넣으며 가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가까이서 야옹 소리가 났다.
 “밥때를 놓치지 않는다니까.”
 가영은 웃으며 잠시 고양이를 바라보더니, 금세 이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진이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길고양이에게 마음이 쓰였나 봐. 고양이를 돌보면서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 같다는 말을 부쩍 많이 했어. 난 그런 이진이를 이해해. 나도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지내면서 내가 대체 왜 태어난 걸까 괴로웠는데, 애들 밥 챙겨 주면서부터 마음이 편해졌거든.”
 가영은 자기가 일하던 편의점 주변의 길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려다가 같은 곳에서 고양이 밥을 챙겨 주던 이진과 처음 만나 친해졌다고 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다고 느낀 건 이진이가 처음이었어. 이야기도 잘 들어 줬고 무엇보다 나를 잘 이해해 줬어.”

3. 아래 질문에 답해 보고 ‘드론’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내 꿈이 파일럿이었거든. 어릴 때는 자주 날렸어. 틈만 나면 드론을 가지고 나가니까 언젠가부터는 아빠가 못마땅하게 보더라.”

울민이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다. 무덤덤한 목소리에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울민이 조이스틱의 레버를 앞쪽으로 밀었다. 그러자 드론이 뻑뻑한 대나무 숲 근처로 날아갔다. 울민은 드론을 더 깊은 숲속으로 들여보냈다. / “나무에 걸릴 텐데.”

울민의 대답은 없었다. 잠시 뒤 울민은 조이스틱 레버를 몸 쪽으로 당겼다. 하지만 아무리 당겨도 드론은 나타나지 않았다.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 “그냥 가자.”

울민이 조이스틱을 손에 쥔 채 가방을 들었다.

“이래야 공평할 거 같아서.”

- 왜 서영재 박사는 울민이 드론을 가지고 노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봤을까?
- 왜 울민은 드론을 찾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 공평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4.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책임져야 하는 무언가’에 관해 친구들에게 말해 봅시다.

“사람들은 행복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365일 내내 행복하긴 어렵거든.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무언가가 살아갈 힘이 되곤 해. 그 무언가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 아마 너와 이진이도 그런 것 같아.”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지. 이진이 뭘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슬픔도 잠깐씩은 잊게 되더라.”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1 검색창에서 ‘에바 할머니’의 작품을 찾아본 후, 이진 엄마의 집에 걸려 있을 법한 그림을 찾아보고 이진 엄마의 심리에 공감해 봅시다.

거실 테이블 앞에 앉은 내게 이진 엄마가 핫초코 한 잔을 내밀었다. 두 손으로 쥔 컵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이진 엄마는 무언가를 가져오겠다며 잠시 방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면서 집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띄었다. 화사한 색깔로 그려진 가족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에바 할머니가 그린 거야?”

이진 엄마는 정리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포근해 보여요.”

“그러게. 에바 할머니의 그림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면서 가슴이 찡해.”

- 1-2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이 있다면 아래의 형식을 참고하여 친구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봅시다.

에바 할머니의 그림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면서 가슴이 찡해.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2-1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함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 이/가 보였다. 살짝 미소가 지어졌다.

“이진이가 입던 건가요?”

“응, 그 옷을 입은 이진이가 참 예뻐거든. 그래서 버릴 수 없었어.”

정리함에는 ㉡ 도 있었다. 내가 이승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종이로 된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 대개는 포스터가 아니라 대형 화면을 통해 영화를 홍보하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게 이진이 꿈이었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미있었다면서 가져왔더라고.”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뭔가 생각난 듯 이진 엄마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며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서는 ㉢ 하나를 내밀었다.

“이진이가 사용하던 ㉣ 인데, 손길이 닿은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진 어머니? 경찰에서 조사가 끝났다고 돌려준 거야.”

나는 이진의 유품 몇 가지를 챙겨 배낭에 넣었다. 그때 정리함 구석에서 ㉤ 을/를 발견했다. 얼마 전 가영이 이진을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한 이야기가 생각나 함께 챙겼다.

- ㉠ :
- ㉡ :
- ㉢ :
- ㉣ :
- ㉤ :

2-2 ㉠~㉡가 소설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추측해 봅시다.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답을 추측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그러면 라희도 한이진과 비슷한 영혼인 건가?”

골골해골의 말이 내 마음속 불안함을 건드렸다. 구천소생존의 다른 영혼들은 사명부 기록이 없어도 윤회한 기억이 있었으므로 생명부에서 기록을 찾으면 윤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윤회의 기억 자체가 없었다. 이제까지는 스스로를 인생 1회 차에 모든 게 끝난, 오지게도 재수가 없는 영혼이라고 여겼다. 내가 염라대왕 공채에 지원한 것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승으로 온 것도, 윤회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과 한이진의 영혼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내면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며 나를 격렬하게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맞다. 내 정체성은 증명된 적이 없었다. 그간 꺾꺾 눌러 왔던 물음이 봉인 해제되고 있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3-2 라희가 깨달은 바를 토대로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내가 어떤 영혼이었던, 나는 나다. 내 영혼이 삼라만상에 태어나 존재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나는 독립된 존재로서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달자 위안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나는 여전히 모른다. 하지만 지금껏 ‘나’로서 살았다. 영혼일 때조차 천방지축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는 게 나다. 차기 염라대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나 염라희다. 그리고 구천소생존과 이승에서 만난 인연들이 어느새 소중한 것도 바로 나의 모습이다.

4.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삶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법의학자가 전하고 싶은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https://www.youtube.com/watch?v=-XstXMJQvrM>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다음에서 드러난 이진의 심정을 정리해 봅시다.

가영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지금 녀석은 누군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슬픔 뿐만 아니라, 버려진 존재로서의 아픔에 짓눌려 있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부모의 사랑이 아닌 대용품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서글픔만 가늠했을 뿐이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외면받은 존재로서의 감정 따위는 살피지 못했다. 아마 녀석은 슬픔과 분노라는 단어로 담아내기도 어려운 복잡 다단한 마음이겠지. 자기 혐오도 있을 테고 세상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살았으리라. 어찌 내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1-2 <보기1>에서 드러난 길고양이와 이진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이진이 <보기2>와 같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1>

“비와 눈을 피할 집이 있고 밥도 굶지 않으니 우리는 걱정할 게 없지만, 애들은 챙겨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잘 돌봐주라고 하셨어. 길고양이 중엔 유기묘가 많아. 처음엔 예쁘다고 데려가 놓고, 관리하기 귀찮아지면 몰래 버리는 경우워. 할머니는 고양이가 사나워지는 건 사람이 보살피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무슨 뜻이야?”

“길고양이는 인간이 버려서 생기는 거잖아. 길고양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 버려지는 것도 서러운데 동시에 낯선 환경에 놓이는 거잖아. 게다가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야. 갑자기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는 자기 영역을 만들기 어려워. 결국 외톨이로 지내다가 추위와 배고픔, 적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 미움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 너무 슬프지 않아? 길고양이들은 고양이 무리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외면받는 존재라는 게.”

<보기2>

“당연히 널 실망시킬 순 없지. 그래서 가는 거야. 아빠가 지금 전부 헛소문이라고 못 박아서 말이야.”

녀석이 말을 멈췄다. 웃음기 가득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싸해졌다. 녀석은 잠시 입술을 일그러뜨리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걸 따지려 가는 거야. 분명 아빠에게 나를 막으려면 소중한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듣질 않아. 내가 그렇게 우스운가 봐. 아빠 마음에 울민이밖에 없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래. 울민이를 지키려고 언론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 <중략> “어떻게 따질 건데?”

“진실을 밝히라고 할 거야. 내 사진과 울민이 사진, 그리고 내 사망 신고서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거야. 한이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말이야.”

“영혼이 합일되면 자연 발화가 돼. 그건 영원한 소멸이야. 무섭지 않아? 하나의 영혼으로서 존중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야.”

“무섭지... 않아. 복제품으로 태어나 부모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는데, 영혼으로서 존중받아서 뭐 하게?”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이진의 엄마의 정체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2-2 서영재 박사가 이진을 만든 이유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2-3 밑줄 친 부분의 답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그런데 가만 보니 올민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영혼이 합일되면 어차피 자연 발화로 사라진다. 굳이 일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다가오는 동짓날까지 적당히 올민인 척하다 보면 시간이 알아서 존재를 지워 버릴 터였다. 그런데 녀석은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지 않고 일을 더 키웠다. 왜일까?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다음 빈칸을 채워 제레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라희는 [] 앱을 켜 [] 자리 앞에 섰다. 그러자 [] 이/가 제레수와 붉은 꽃길 홀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진이 물길에 발을 담그자 [] 와/과 칭찬스티커 북으로 영혼이 들어갔다. 이제 (찰나) 앱만 켜면 끝나는 것이었지만 [] 의 접착제와 칭찬스티커 북의 테이프가 떼어지면서 물길로 빠져 들어간 라희는 그곳에서 [] 을/를 만났다. 라희는 어쩔 수 없이 [] 을/를 입고 거기에 이진의 영혼을 넣었다.

3-2 라희가 어긴 금기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동지에는 돌아와야 한다. 몇 가지 금기들을 꼭 기억해라. 우선 네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이승에 도착한 날로부터 삼칠일 동안만이다. 많은 미래가 새어 나가면 영계가 흔들리므로, 날마다 그날 하루치의 미래만 볼 수 있다. 영혼이 들어간 몸주를 마구니로부터 보호해라. 마구니가 심하게 요동치면 몸주의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염라대왕이 될 영혼이다. 혼이 섞임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게 주어진 육신에 다른 영혼을 함부로 실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마라. 만약 이걸 어기면 너는 차기 염라대왕이 될 수 없다

“내가 복제인간 영혼을 해결했다는 이야기 아직 못 들었어?”

“들긴 했는데... 그게 너라고?”

알바 영혼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내 눈치를 살살 살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마 영혼 텅김 현상을 해결하러 이승에 간 선학이 금기를 어겨 결국 염라대왕도 못 되고 사명부에 복원도 안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겠지.

4. 이진이 저승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을 고려하여 이진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말해 봅시다.

그만 갈래. 준비해 줘.

나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너석이 간대.”

세 위가 먹던 걸 멈추고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얼른 답장을 보냈다.

마음 바꾸면 안 돼.

그럴 일 없을 거야.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활동 1. 여러분이 울민이라고 가정하고 이진의 편지에 답장을 써 봅시다.

서울민. 내가 형이라고 안 부른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아빠가 고친 내 드론을 보니까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지만 사과는 안 할 거야. 너는 아빠와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부탁할 것이 있어. 우리 엄마를 가끔 만나 줘. 엄마는 나랑 같이 영화 보는 거 좋아했어. 한 번씩 엄마와 영화 데이트를 부탁해. 우리 엄마가 끓여 주는 라면도 맛있게 먹어 주면 좋겠어. 진짜 맛있을 거야. 대파랑 콩나물 넣은 라면이 끝내주거든. 아 참, 너도 먹어 봤지? 그러면 내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중략>

한이진.

활동 2.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속편을 구성해 봅시다.

1. 다음 밑줄 친 문제가 무엇인지 상상해 봅시다.

“네가 복제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온 라희니?”

“그런데요.”

“삼신할미가 찾으신다. 서천꽃밭에 문제가 생겼거든. 이번 일을 잘 처리하면 삼신할미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 차기 염라대왕 자리를 버리면서까지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해낸 네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하셨어. 너야말로 삼신할미 자격을 갖춘 영혼이라면서 꼭 데려오라고 부탁하셨지.”

헛웃음이 나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염라희가 아니라 삼신라희인가. 만약 이승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땐 신라희라고 지어야지. 솔직히 나는 삼신할미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거래는 할 수 있었다. 조건을 달아 봐야겠다. 삼신할미 자리를 주는 대신 이승에서 태어나게 해 달라고. 천국은 지겨우니 말이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 뵈러 가면 되나요?”

2. <보기>를 참고하여 친구들과 함께 속편의 내용 구성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형식을 띠고 있다.

- 발단** 소설의 첫 부분으로, 주인공과 배경이 소개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요 인물과 세계관을 설정하고 갈등의 씨앗을 심는다. 독자는 이 부분에서 사건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 전개** 갈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사건들이 점차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주인공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인물 간의 관계나 갈등이 깊어진다.
- 절정** 소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주인공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독자의 기대와 긴장이 극대화된다.
- 위기** 절정 이후, 사건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다. 주인공이 큰 위협에 빠지거나 해결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결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주요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정리된다. 주인공이 변화한 모습으로 새 삶을 시작하거나, 이야기의 여운이 남는 끝맺음이 이루어진다.

예시

	예시
발단	한 소년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 온 뒤, 그곳에서 겪을 모험의 서막이 열린다.
전개	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들과 함께 큰 미스터리해 휘말리기 시작한다.
절정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미스터리의 핵심 장소로 가서 큰 위기에 맞닥뜨린다.
위기	소년과 친구들이 악당에게 붙잡혀 도망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한다.
결말	소년과 친구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함께 겪은 일로 인해 더욱 성장한다.

3. 2를 참고하여 속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발전	
전개	
절정	
위기	
결말	

4. 챗GPT를 활용해서 소설을 써 봅시다.

- ▶ 참고 영상: 10분이면 나도 웹소설 작가? 챗GPT로 웹소설 한편 똑딱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048vBp2Frhw>

지도Tip 돌려 읽기 활동을 고려하여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5. 완성된 소설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